

一에도 二에도 保險酬価의 適正化



경희대학병원 金 舜 鏞
(本會 19代 會長, 前慶熙醫院長)

筆者가 1984年 새해에 바라는 病院界의 所望, 아니 數年을 두고 바라온 所望은 一에도 二에도 三에도 醫療保險酬価의 適正化에 있다. 物價上昇에 比例해서 引上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策定된 酬価를 適正하게 改正하자는 것이다.

醫療保險酬価를 適正化하자는 것은 결코 醫療人들의 權益만을 앞세워서가 아니다. 그 보다는 國民保健의 將來를 위한 國家百年大計에서 임을 分明히 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醫療水準이 低下되면 被害를 입는 것은 國民이고 醫療機關의 再投資없이 높은 醫療水準을 維持할 수는 없는 일임을 생각하면 國民保健의 向上을 期約키 위해서는 醫療機關의 再投資가 絶對的이고 그렇기에 醫療保險酬価는 醫療機關이 自立할 수 있는 程度의 酬価가 適正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만 醫療人들도 正道를 지킬 수 있고 低所得層인 農漁民과 零細勤勞者 等 一般患者의 過重한 醫療費負擔을 輕減할 수 있다.

醫療酬価 뿐 아니라 모든 酬価는 正道를 지키고도 自立이 可能한 水準이라야 한다. 便法이 아니고는 自立할 수 없는 酬価는 非理를 誘發치 않을 수 없고 要領있고 便法에 能한 奸巧한 사람만이 存續할 수 있는 逆理를 낳게 마련이다.

우리 醫療酬価도 이런 觀點에서 定해져야 하고 酬価가 適正化된 后에도 非理가 있을 때는 加차없는 膺懲이 加해 져야만 正義社會가 이룩될 수 있다. 保險酬価의 適正化는 國民保健向上의 關鍵인 높은 醫療水準의 維持 뿐 아니라 醫療人들이 正道를 걷고도 自立할 수 있고 國民으로부터의 信賴와 權威를 지킬 수 있게 하는 基礎가 된다.

이렇게 自명한 保險酬価의 適正化主張이 社會에 먹혀들지 않고 甚之於是 醫師들의 使命을 저버린 利己心으로만 여겨지는 原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生覺해 보지 않을 수 없다.

不信을 當하는 集團의 主張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當然하다. 醫는 仁術이라는 固定觀念

에 차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 돈 때문에 没人情했거나 不道德한 診療를 한 醫師에 對한 反感이나 憎惡의 程度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醫療人社會는 少數이기는 하나 不道德한 同僚들을 너무 오래동안 감싸 주고 辯護해 왔음을 自覺해야 한다. 벌써 오래前에 徹底한 自己反省과 自體淨化가 있었어야 오늘의 醫師에 對한 不信을 免할 수 있었다.

1984年 새해에는 우리 醫療人들이 危機를 自覺하고 不道德한 診療를 根絶하고 社會의 信賴를 回復하는 일에 좀 더 積極 參與했으면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우리의 主張을 堂堂히 펼 수 있고 또 堂堂히 펴야 한다.

아직 新年이 된지 2週日도 못되는데 筆者의 冊床 위에는 남보기 부끄러운 一枚의 X線 寫眞이 놓여 있다. 왜 이 醫師先生님은 이런 일을 했어야 했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自立이 必要했을까 아니면 無知에서 일까 自身의 專攻과는 너무도 距離가 먼 일인데도 經濟的으로도 余裕가 있는 이 분이 무엇 때문에 自身의 能力限界를 無視하고 이런 診療를 했을까 이대로 두었으면 分明 不具가 되었을 이 患者의 怨望이 두렵지도 않드란 말인가 自身의 能力限界를 正確히 알고 必要할 때는 適機에 適所로 轉科하는 것이 우리 醫師들의 基本倫理요 또 슬기임을 이분은 잊고 계신 것일까

모든 專門職들의 權威와 信任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못된다. 그들 스스로가 지키고 努力하고 爭取해야만 한다.

우리 醫師들의 權威와 信任은 우리 스스로가 診斷과 治療에 正確하고 不道德한 일들이 없어야 하고 이를 지키는 不斷하고도 積極의 努力이 있어야만 可能하다. 우리 醫師들은 한 사람의 例外도 없이 各自가 스스로의 立身을 自覺하고 周邊淨化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좀 더 積極의 姿勢로 우리의 不當한 現實들을 한미이라도 더 많은 社會人에게 說明하고 왜 保俸酬価의 適正化가 우리 나라 國民保健 向上의 基本要件인가를 說得하는 弘報要員이기를 바란다.

“司法部의 의견한 姿勢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品格과 矜持를 지킴으로써 確立되는 것”이라고 거듭 외치고 십어온 司法部의 아버지로 指稱되는 故 金炳魯 大法院長님의 가르침은 우리 醫療人들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近來에 醫師에 對한 給與가 너무 높다는 世評을 듣는다. 醫師라고 해서 特權을 누려서는 안되고 또 要求해서는 더욱 안된다. 新進 專門 醫들 中에는 間或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要求하는 事例가 있다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醫師들에 對한 一般社會에 미치는 印象을 생각해서 不快함이 앞서는 것이 率直한 筆者의 心情이었다. 醫師가 돈을 버는 時代는 이미 지났다. 醫師는 安定된 生活을 維持할 수 있고 그 高貴한 使命 때문에 社會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을 수 있다는 데 滿足하는 價值觀이 必要하다.

그러나 醫師의 給與가 他職種과 同一해야 한다는 論理는 不當하다. 그것은 우리보다도 오랜동안 醫療시스템을 維持하고 經驗해 온 先進諸國들의 現實이 證明한다. 美國 뿐 아니라 모든 先進諸國에서의 醫師에 對한 處遇와 他 專門職 사이에는 嚴然한 給與의 差가 있다. 가장 經濟的으로 合理的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美國에서조차도 医科大学 教授의 給與는 工大教授의 給與의 3배나 된다. 이러한 事實은 가장 尊嚴하고 貴重한 人命을 다루는 醫師는 그 만큼의 使命과 責任이 있고 남모르는 努力이 要求된다는 事實과 그들의 오랜 經驗에 立脚한 必要性에 依한 것이다.

醫師의 量產 即 供給의 增量이 醫師의 給與를 낮추고 醫療費를 節減할 수 있으리라는 兇想은 危險하다. 醫師와 患者의 關係는 一般 流通經濟의 需要와 供給의 原則이 適用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便하고 安全하기를 바란다. 病院에 가기 보다는 往診을 願하고 數時間后 보다는 即刻 疼痛이 없어지기를 願한다. 한 치라도 더 高級醫療가 바람직하고 하루라도 더 最新이기를 바라는 것이